



- -

Stéphane Couralet, Hyunjung Son

► To cite this version:

Stéphane Couralet, Hyunjung Son. - -. (Société d'études franco-coréennes), 2013, 65, pp.139-165. <hal-02984735>

HAL Id: hal-02984735

<https://hal.science/hal-02984735>

Submitted on 25 Oct 2021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 프랑스어와 한국어 청자반응 비교 연구\*

- 발화와 고갯짓을 중심으로 -

손현정 · Stéphane COURALET\*\*

### <차례>

1. 청자반응(BC, backchannel)
2. 다면자료 말뭉치
3. 언어적 청자반응 분석
4. 고갯짓 청자반응 분석
5. 결론

구어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활동(narration)은 화자와 청자가 협력적인 구조(système de coordination) 안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이다.<sup>1)</sup> 이야기 활동을 이끌어가는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청자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발화 전략을 수정, 강화, 보완한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이야기 활동 전개상 발화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행위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 활동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자신의 이야기 활동에 반영하는 행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Cosnier(1996)는 소위 ‘화자의 네 가지 질문(les 4 questions du parleur)’을 말하였다. 1) (대화상대자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Est-ce qu’on m’entend?), 2)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Est-ce qu’on m’écoute?), 3) 내 이야기를 이해했는가?(Est-ce qu’on me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27)

\*\*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HK인문언어사업단 / 프랑스 INALCO

1) Clark(1996)은 협력적인 언어 행위를 joint action이라 부르기도 했다.

comprend?) 4)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Qu'est-ce qu'on en pense?)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화자가 관찰하는 것은 다양한 청자의 행동, 즉 청자반응(backchannel ou BC<sup>2)</sup>, signal d'écoute<sup>3)</sup>, régulateur<sup>4)</sup>, feedback<sup>5)</sup>)이다.<sup>6)</sup> 청자반응은 화자의 이야기에 대한 감각적 수용, 인지적 이해, 감정적 상태를 표현하는 신호로서(Bertrand et al., 2009), 이것은 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언어적일 수도 있고 비언어적일 수도 있다. 청자가 이야기에서 어떤 것이 의미적으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최종 심판자이고(McGregor & White, 1990), 청자가 화자에게 보내는 청자반응이 전체적인 이야기 활동 전개 양상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자반응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진 이야기 활동에서 청자가 만들어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청자반응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비언어적 청자반응은 고갯짓(hochement de tête)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고갯짓은 비언어적 청자반응 가운데 시선(regard)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ster and Oberlander(2007), Knight et al.(2011), Maynard(1989, 1990)). 1절에서는 청자반응의 정의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2절에서는 청자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축한 다면자료 말뭉치(corpus multimodal)를 소개하였다. 다면자료 말뭉치란 음성언어와 다양한 몸짓, 얼굴 표현과 촉각 등 인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를 녹음, 녹화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전사하고 저장한 자료이다(Allwood(2008), Wittenburg(2008)).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프랑스어 사용 청자와 10명의 한국어 사용 청자를 대상으로 언어발화와 몸짓을 주석한 다면자료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3절에서는 이렇게 구축된 다면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어와 한국어 이야기 활동에 사용된 언어적 청자반응을 분석하였다. 언어적 청자반응을 관찰할 때에는 0.1초 이상의 쉼을 발화 경계로 삼았으며, 형태적으로는 단순형과 반복형, 복합형을 구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절에서는, 고갯짓 청자반응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프랑스어 사용 청자와 한국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이 수행 빈도뿐

2) Yngve(1970)(Knight(2009)에서 재인용.)

3) Bertrand et al.(2009).

4) Cosnier(1988).

5) Allwood et al.(2007).

6) 청자반응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는 Gardner(2001) 참조.

만 아니라 수행 방식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 1. 청자반응(BC, backchannel)

청자반응은 이야기 활동에서 ‘유지’와 ‘제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지의 청자반응은 화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부여하는 것이고, 제어의 청자반응은 청자가 발언권을 획득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거나, 화자가 이야기 전략을 수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야기 활동 중에 이루어지는 청자반응의 세부적인 기능 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Bertrand et al.(2009), Knight(2009), Gardner(2001), Maynard(1989)), 그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a) 대화 이어하기(*continuer*) :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화자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을 바란다는 신호
- (b) 이해하기(*understanding*) : 화자의 앞선 발화 내용을 이해했다는 신호
- (c) 인정하기(*acknowledgement*) : 화자의 앞선 발화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신호
- (d) 감정적 평가(*assessment*) : 화자의 앞선 발화 내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표현하는 신호

한편, 청자반응의 수행 방식은 크게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 나뉜다. Cosnier(1996)는 이를 세분화하여 세 가지 유형의 언어적 청자반응(a-c)과 세 가지 유형의 비언어적 청자반응(d-f)를 구별하였다.

- (a) 언어적이거나 음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짧은 발화 : Hum-Hum, oui, d'accord, je vois, non? 등
- (b) 완전한 문장 또는 앞선 화자의 발화에 대한 변형(reformulation) : 'il 'était, comment dire ... perplexe? -oui perplexe...'
- (c) 화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 : 'Comment ça? ...', 'tu veux dire que...?'
- (d) 고갯짓(hochement de tête) : 한 번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e) 얼굴 표정 : 미소가 자주 볼 수 있는 예이지만, ‘당혹스러움’, ‘의심’ 또는 ‘비난’ 처럼 화자의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표정들도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 (f) 시선 : 화자는 청자의 시선이 필요하며 청자의 시선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구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Cosnier가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언어적 청자반응 가운데 첫 번째 유형, 즉 (a) 언어적이거나 음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짧은 발화만을 언어적 청자반응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언어적 청자반응은 단음절 혹은 두 음절 길이를 갖고, 구체적인 주제를 표현하지 않는(non-topical) 특성을 갖고 있으며(Gardner(2001)), 영어에서는 ‘mm’, ‘huh’, ‘hm’, ‘yeah’, ‘oh’, ‘I see’, ‘alright’, ‘really?’ 등이<sup>7)</sup>, 일본어에서는 ‘uh-huh’, ‘soo’(알겠어), ‘honto?’(정말) 등(Maynard(1989, 1990))이, 그리고 프랑스어에서는 ‘ouais’, ‘ah ouais’, ‘eh ouais’, ‘ok’, ‘voilà’, ‘mh’, ‘non’, ‘ah bon’, ‘d’accord’, ‘je vois’ 등(Bertrand et al(2009), Cosnier(1996))이 언어적 청자반응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한편, 비언어적 청자반응 가운데 고갯짓 수행 방식은 개별언어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Maynard(1989, 1990)는 일본어와 영어에서 수행되는 고갯짓 청자반응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일본어 사용 청자들이 영어 사용 청자보다 고갯짓을 더 자주 사용하고, 일본어 사용 청자는 종결어미 다음, 문장 사이에 쉼(pause)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연결어미가 출현할 때, 고갯짓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영어 사용 청자는 일본어 사용 청자에 비해 고갯짓을 훨씬 덜 사용하며, 문장이나 구와 같은 문법적인 단위가 끝날 때, ‘you know’와 같은 문장 종료 표지가 나타날 때, 그리고 강조나 불확실함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고갯짓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Clave(2000), Maynard(1989, 1990)). 또한 외국어 습득의 관점에서 일본어(L1) 화자가 프랑스어(L2)를 사용할 때 수행하는 언어몸짓을 관찰한 Kida(2005)에 따르면, 일본어 청자는 프랑스어(L2)로 대화를 수행할 때에도 일본어(L1)를 사용할 때 수행하는 고갯짓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

7) 연구자마다 인정하는 언어적 청자반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세 음절 이상의 긴 발화를 청자반응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영어 청자반응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Gardner(2001), Knight(2009) 참조.

럼 모국어의 고갯짓 수행 패턴이 외국어를 사용할 때에도 나타나는 현상은 영어(L2)로 대화를 수행하는 일본어(L1) 청자를 연구한 Tsuchiya(2010)에 의해서도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의 청자반응과 한국어의 청자반응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프랑스어 청자와 한국어 청자가 수행하는 언어적 청자반응과 고갯짓 청자반응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프랑스어의 청자반응과 한국어의 청자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한 다면자료 말뭉치를 소개하겠다.

## 2. 다면자료 말뭉치

다면자료 말뭉치는 음성언어와 몸짓, 얼굴 표정 등 인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를 녹음, 녹화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전사하고 저장한 자료이다(Allwood(2008), Wittenburg(2008)).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야기 활동에서 사용된 청자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프랑스어와 한국어 대화 장면을 녹화/녹음하고, 10명의 프랑스어 사용 청자와 10명의 한국어 사용 청자를 대상으로 언어발화와 몸짓을 주석한 다면자료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 2.1. 원자료(données brutes) 수집

다면자료 말뭉치로 구축할 원자료를 얻기 위하여, 화자 역할을 할 피험자에게 대화 없이 몸짓만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면대면 대화 상황에서 그 줄거리를 청자 역할을 하는 피험자에게 전달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화자 역할을 맡은 피험자는 동영상을 시청한 뒤 청자 역할을 맡은 피험자가 기다리는 방으로 이동하였다. 피험자들은 마주앉아서 잠시 담소를 나눈 뒤 촬영이 시작되면 화자 역할을 맡은 피험자가 청자 역할을 맡은 피험자에게 동영상 줄거리를 전달하였다. 본 연구의 관찰 대상은 청자 역할을 맡은 프랑스인 대학생 10명과 한국인 대학생 10명이다.

프랑스인 대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준 동영상은 동영상 「빼꼼」의 「쥐잡기」 편과, 동영상 「Minuscule」의 「la coccinelle」 편이다.

두 편 모두 동물이 주인공이며, 대화 없이 이야기가 진행된다. 「빼꼼」의 「쥐잡기」 편은 의인화된 주인공 백곰(빼꼼)이 아침식사를 방해한 쥐를 잡기 위하여 추격전을 벌이지만 결국 쥐를 용서하고 사이좋게 함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Minuscule」의 「la coccinelle」 편은 주인공인 무당벌레가 자신을 잡아먹려고 거미줄을 친 거미를 꿀탕 먹이기 위하여 파리떼를 유인하여 거미줄을 망가트리는 내용이다.

청자로서 실험에 참여한 프랑스어 사용자는 프랑스 파리 INALCO의 한국어 학과 재학생 10명이고, 청자로서 실험에 참여한 한국어 사용자는 서울 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재학생 10명이다. 실험에 참여한 프랑스인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과 한국인 학생들의 프랑스어 수준은 모두 초급이었으므로, 언어간 간섭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고 실험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피험자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녹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도록 지시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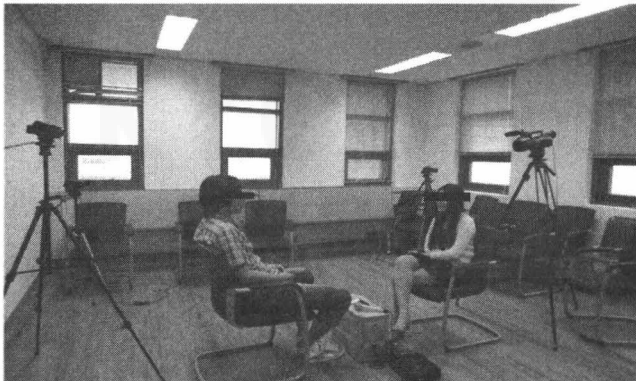


그림 1. 실험 장면

## 2.2. 다면자료 구축 : 전사와 주석

위 실험을 통해 원자료를 확보한 후, 다면자료 구축 소프트웨어인 ELAN<sup>8)</sup>을 사용하여 다면자료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발화 전사(transcription)의 경우,

8) ELAN(Eudico Linguistic Annotator)은 네덜란드 Max Planck Institute에서 만든 다면자료 구축 프로그램이다(<http://www.lat-mpi.eu/tools/elan/>).

자주 쓰이는 일부 변이형(oui-ouais, 그런데-근데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표준어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발화 전사는 1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1인이 수정,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몸짓 주석(annotation)은 손짓, 고갯짓, 얼굴표정과 시선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인의 주석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주석을 실시한 후 제3의 주석자가 이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최종 주석을 완성하였다. 몸짓 주석은 손현정(2012)이 고안한 주석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고갯짓 주석체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고갯짓 | 형태   | 앞에서 뒤로 끄덕  |
|     |      | 뒤에서 앞으로 끄덕 |
|     |      | 한쪽으로 가웃    |
|     |      | 한쪽으로 돌린다   |
|     |      | 양쪽으로 젖는다   |
|     |      | 복합         |
|     | 반복횟수 | 1회         |
|     |      | 2-3회       |
|     |      | 4회 이상      |
|     | 속도   | 빠르게        |
|     |      | 보통         |
|     |      | 느리게        |
|     | 크기   | 상체까지 흔든다   |
|     |      | 고개만 크게 흔든다 |
|     |      | 보통         |
|     |      | 고개만 작게 흔든다 |

표 1. 고갯짓의 주석체계



다음은 완성된 다면자료 말뭉치의 예이다.



그림 2. ELAN으로 구축된 다면자료 말뭉치 예

다면자료 말뭉치 화면의 왼쪽 상단에는 청자의 영상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선택된 주석항목(tier)에 포함된 모든 주석들이 시작시간, 종료시간, 지속시간 등의 세부정보와 함께 나타난다. 화면의 중간에는 말소리의 파형이 나타나고, 그 아래에는 주석항목들이 정렬되어 있다. 이처럼 다면자료 말뭉치는 영상 정보, 소리 정보, 텍스트화된 주석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시간축을 기준으로 정렬해 놓았기 때문에, 다면자료 말뭉치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구축된 다면자료 말뭉치를 활용하여 언어적 청자반응과 고갯짓 청자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겠다.

### 3. 언어적 청자반응 분석

본 연구에서는 0.1초 이상의 쉼(pause)을 발화 경계로 삼고, 두 개의 발화 경계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발화를 최소 발화 단위로 간주했다. 그

리고 최소 발화 단위 가운데, 단음절 혹은 두 음절 길이의 짧은 발화로서, 구체적인 주제를 표현하지 않는(non-topical) 청자의 발화를 언어적 청자반응으로 정의하고, 프랑스어 청자반응과 한국어의 청자반응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 3.1. 프랑스어 이야기 활동의 언어적 청자반응

Bertrand et al.(2009)은 Le CID라는 프랑스어 다면자료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어 이야기 활동에서 사용된 언어적 청자반응을 분석한 바 있다.<sup>9)</sup> 이 연구가 수행한 언어적 청자반응 분석은 기본적으로 대화분석 이론(CA)과 음성학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수집된 언어적 청자반응을 담화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Selting(1998)이 제안한 바에 따라 ‘순서교대 단위’(TCU, turn-constructive units)를 설정하고, 다면자료 말뭉치에서 청자반응으로 간주될 만한 발화들을 추출한 후, 이들의 담화 기능을 Maynard(1989)의 청자반응 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Bertrand et al.(2009)이 언어적 청자반응으로 분석한 발화는 다음 8가지이다 : ‘ouais’, ‘ah ouais’, ‘eh ouais’, ‘voilà’, ‘mh’, ‘non’, ‘ah non’, ‘d’accord’.

그런데 Bertrand et al.(2009)의 연구는 언어적 청자반응의 복잡도(complexité)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Orestrom(1983), Tottie(1991), Knight(2009)에 따르면 언어적 청자반응은 단순형인지, 두 개 이상의 단순형들이 결합한 복합형인지, 동일 형태가 반복된 반복형인지에 따라 그 의미 기능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Bertrand et al.(2009)은 단순형 청자반응 ‘ouais’가 *continuer*(5.6%), *understanding*(33.3%), *acknowledgement*(44.4%), *assessment*(7.4), *request/confirmation request*(3.7%)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sup>10)</sup>, ouais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지, ‘eh’나 ‘ah’ 이외의 다른 언어적 청자반응과 결합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분석했다면 ‘ouais’의 의미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프랑스어 다면자료 말뭉치를 관찰한 결과, ‘ouais’는 ‘eh ouais’나 ‘ah ouais’ 형태 이외에, ‘oui d’accord’, ‘oui oui’, ‘ah oui d’accord ok’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

9) 다면자료 말뭉치를 활용하여 프랑스어 청자반응을 분석한 연구는 Le CID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유일하다.

10) Bertrand et al.(2009)에서 청자반응의 기능을 기술할 때 사용한 용어는 Maynard(1989)를 따르고 있다.

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청자반응으로 구성된 단순형과, 동일한 청자반응을 두 번 이상 반복하여 사용한 반복형,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청자반응으로 구성된 복합형을 구별하여 언어적 청자반응을 살펴보았다.

| 청자번호 | 청자 발화<br>출현빈도수 | 언어적 청자반응<br>출현빈도수 |
|------|----------------|-------------------|
| 1    | 15             | 8                 |
| 2    | 12             | 11                |
| 3    | 39             | 18                |
| 4    | 31             | 23                |
| 5    | 20             | 15                |
| 6    | 25             | 16                |
| 7    | 27             | 3                 |
| 8    | 21             | 9                 |
| 9    | 13             | 9                 |
| 10   | 19             | 10                |
| 총빈도수 | 222            | 120               |

표 2. 프랑스어 청자발화와 언어적 청자반응 출현빈도수

총 32분 50.2초 동안 이루어지는 10개의 프랑스어 대화에서, 청자는 총 222개의 최소 발화 단위(이하 청자 발화)를 만들었다. 청자 발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대화는 총 39개의 청자 발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자 발화가 가장 적게 이루어지는 대화는 총 12개의 청자 발화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1분당 6.76개의 발화를 수행하였다.

한편, 10개의 프랑스어 대화에서 관찰된 언어적 청자반응은 총 120개로, 전체 청자 발화의 54.05%를 차지하였다.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1분당 3.65개의 언어적 청자반응을 수행하였는데, 가장 많은 언어적 청자반응이 관찰된 대화는 총 31개의 청자 발화 가운데 23개의 청자반응을 포함하고 있었고, 가장 적은 언어적 청자반응이 관찰된 대화는 총 27개의 청자 발화 가운데 3개의 청자반응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음 표는 본 연구에 사용된 프랑스어 다면자료 말뭉치에서 2회 이상 출현한 언어적 청자반응의 종류와 출현빈도수를 정리한 것이다.

| 청자<br>반응<br>청자<br>번호 | oui | d'accord | ah  | ok   | um um | um | oui oui | ah d'accord | ah oui |
|----------------------|-----|----------|-----|------|-------|----|---------|-------------|--------|
| 1                    | 2   | 6        | 0   | 1    | 0     | 0  | 0       | 0           | 0      |
| 2                    | 5   | 0        | 1   | 1    | 0     | 0  | 2       | 1           | 0      |
| 3                    | 10  | 0        | 0   | 1    | 1     | 0  | 1       | 3           | 2      |
| 4                    | 3   | 11       | 0   | 2    | 4     | 0  | 0       | 0           | 0      |
| 5                    | 4   | 3        | 1   | 3    | 0     | 1  | 0       | 0           | 1      |
| 6                    | 4   | 2        | 3   | 1    | 3     | 1  | 0       | 0           | 1      |
| 7                    | 0   | 3        | 0   | 0    | 0     | 0  | 0       | 0           | 0      |
| 8                    | 2   | 1        | 1   | 0    | 0     | 1  | 0       | 0           | 0      |
| 9                    | 2   | 6        | 0   | 1    | 0     | 0  | 0       | 0           | 0      |
| 10                   | 7   | 0        | 0   | 0    | 2     | 1  | 0       | 0           | 0      |
| 총빈도수                 | 39  | 32       | 6   | 10   | 10    | 4  | 3       | 4           | 4      |
| 변동계수                 | 74  | 111      | 161 | 94.3 | 149.1 |    |         |             |        |

표 3. 2회 이상 출현한 프랑스어 언어적 청자반응 종류와 출현빈도수

120개 언어적 청자반응 가운데 단순형 청자반응('oui', 'd'accord', 'ah', 'ok', 'um' 등)은 79개, 반복형 청자반응('um um', 'oui oui' 등)은 13개, 복합형 청자반응('ah d'accord', 'ah oui' 등)은 28개가 관찰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관찰된 언어적 청자반응은 'oui'(39개), 'd'accord'(32개)와 'ok'(10개), 'um um'(10개)이었다. 빈도수가 높은 상위 5개 청자반응에 대해서는, 이들이 모든 청자에게서 골고루 관찰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동계수(coefficient de variation)를 계산해 보았다. 변동계수는 값이 작을수록 청자들 사이에 사용 편차가 적고, 값이 커질수록 청자들 사이에 사용 편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변동계수가 가장 낮은 것은 'oui'(74.0)이고, 이어서 변동계수가 작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ok'(94.3), 'd'accord'(111.0), 'um um'(149.1), 'ah'(161.0) 순이었다. 다시 말해서 'oui'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적 청자반응이고, 다음으로는 'ok', 'd'accord', 'um um', 'ah'의 순서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한국어 이야기 활동의 언어적 청자반응

한국어의 언어적 청자반응으로는 ‘네’, ‘예’, ‘음’, ‘어’, ‘응’, ‘글쎄’가 다루어진 바 있다(김하수(1989), 이원표(2001), 차지현(2007)). 이들은 화자의 말에 부정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사용되는 긍정적인 호응의 기능을 수행하며(차지현(2007)), 대부분 굳어진 표현에 속한다(이원표(2001)).

본 연구에서 관찰한 한국어 다면자료 말뭉치에서는 단독으로 사용된 ‘응’, ‘어’, ‘아’를 비롯하여 ‘응’, ‘어’, ‘아’의 반복형과, ‘아(어) 진짜’, ‘그래’, ‘아 맞아’ 등의 언어적 청자반응이 관찰되었다. 우선 언어적 청자반응의 출현빈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청자번호 | 청자 발화<br>출현빈도수 | 언어적 청자반응<br>출현빈도수 |
|------|----------------|-------------------|
| 1    | 51             | 16                |
| 2    | 8              | 4                 |
| 3    | 27             | 15                |
| 4    | 8              | 7                 |
| 5    | 75             | 47                |
| 6    | 45             | 13                |
| 7    | 36             | 19                |
| 8    | 34             | 7                 |
| 9    | 31             | 6                 |
| 10   | 81             | 74                |
| 총빈도수 | 396            | 208               |

표 4. 한국어 청자발화와 언어적 청자반응 출현빈도수

총 41분 57.8초 동안 지속된 10개의 한국어 대화에서 청자가 만들어낸 최소 발화 단위(청자 발화)는 총 396개였으며, 1분당 9.44개의 청자 발화가 관찰되었다. 청자 발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대화는 총 81개의 청자 발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자 발화가 가장 적게 이루어지는 대화는 총 8개의 청자 발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10개의 한국어 대화에서 관찰된 언어적 청자반응은 총 208개로 전체 청자 발화의 52.53%를 차지하였고, 한국어 사용 청자는 1분당 4.96개의 언어적 청자반응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언어적 청자반응이

관찰된 대화는 총 81개의 청자 발화 가운데 74개의 청자반응을 포함하고 있었고, 가장 적은 청자반응이 관찰된 대화는 총 8개의 청자 발화 가운데 4개의 청자반응을 포함하고 있었다. 2회 이상 관찰된 언어적 청자반응의 종류와 출현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청자 발화<br>청자 번호 | 아  | 아(반복) | 어  | 어(반복) | 응   | 응(반복) | 아 그래 | 그래 | 그렇구나 |
|----------------|----|-------|----|-------|-----|-------|------|----|------|
| 1              | 2  | 3     | 5  | 2     | 2   | 0     | 0    | 0  | 0    |
| 2              | 0  | 0     | 0  | 0     | 4   | 0     | 0    | 0  | 0    |
| 3              | 1  | 0     | 2  | 1     | 10  | 0     | 0    | 0  | 0    |
| 4              | 0  | 0     | 2  | 0     | 5   | 0     | 0    | 0  | 0    |
| 5              | 2  | 2     | 18 | 1     | 19  | 0     | 2    | 0  | 0    |
| 6              | 5  | 0     | 2  | 0     | 4   | 0     | 0    | 1  | 1    |
| 7              | 0  | 0     | 5  | 0     | 7   | 7     | 0    | 0  | 0    |
| 8              | 0  | 1     | 0  | 0     | 4   | 0     | 0    | 0  | 1    |
| 9              | 5  | 0     | 0  | 0     | 1   | 0     | 0    | 0  | 0    |
| 10             | 1  | 3     | 2  | 0     | 60  | 6     | 0    | 1  | 0    |
| 총빈도수           | 16 | 9     | 36 | 4     | 116 | 13    | 2    | 2  | 2    |

표 5. 2회 이상 출현한 한국어 언어적 청자반응 종류와 출현빈도수

2회 이상 관찰된 언어적 청자반응 가운데, 단순형 청자반응은 ‘아’, ‘어’, ‘응’, ‘그래’, ‘그렇구나’이고, 반복형 청자반응은 ‘아(반복)’, ‘어(반복)’, ‘응(반복)’이다. 그리고 복합형 청자반응은 ‘아 그래’가 관찰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관찰된 청자반응은 ‘응’으로 총 116개가 관찰되었다. 이어서 ‘어’(36개) ‘아’(16개), ‘응’(반복)(13개), ‘아’(반복)(9개)가 관찰되었다.

### 3.3. 프랑스어 사용 청자와 한국어 사용 청자의 언어적 청자반응 비교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언어적 청자반응으로 ‘oui’, ‘ok’, ‘d’accord’, ‘um um’, ‘ah’ 등을 자주 사용했으며, 한국어 사용 청자는 ‘응’, ‘어’, ‘아’, ‘응(반복)’, ‘아(반복)’ 등을 자주 사용하였다. 프랑스어의 ‘oui’나 ‘um um’은 한국어 청자반응 ‘응’, ‘어’ 등

에서 대응어 또는 번역어를 직접 찾을 수 있으나, 프랑스어의 'ok'와 'd'accord'는 한국어 청자반응 가운데에서 직접적인 대응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언어적 청자반응의 사용빈도의 측면에서,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1분당 3.65개의 언어적 청자반응을 사용한 반면, 한국어 사용 청자는 1분당 4.96개의 언어적 청자반응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어 사용 청자는 프랑스어 사용 청자보다 언어적 청자반응을 1분당 1.31개, 백분율값으로는 26.41%p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Maynard(1990)는 동일한 대화 조건 하에서 일본어 사용 청자와 미국인 영어 사용 청자의 언어적 청자반응 사용 빈도를 비교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어 사용 청자는 613.97개의 언어적 청자반응<sup>11)</sup>을 사용했고, 미국인 영어 사용 청자는 214.98개의 언어적 청자반응<sup>12)</sup>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어 사용 청자는 미국인 영어 사용 청자보다 언어적 청자반응을 64.99%p 더 많이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비교해 보면, 한국어 사용 청자와 프랑스어 사용 청자의 언어적 청자반응 사용 경향의 차이(26.41%p)는 일본어 사용 청자와 미국인 영어 사용 청자의 언어적 청자반응 사용 경향의 차이(64.99%p)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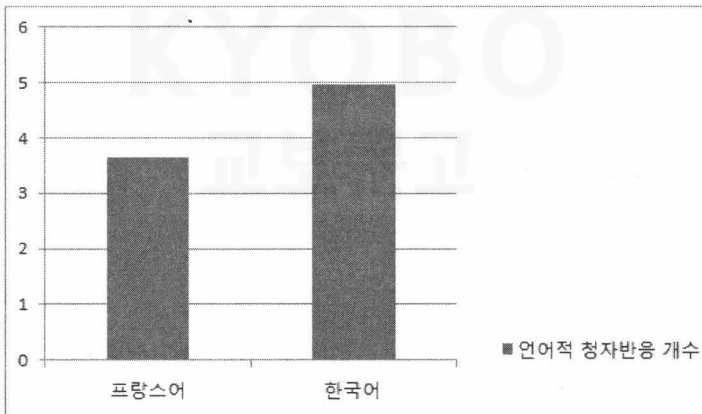


그림 3. 1분당 사용한 언어적 청자반응 개수

11) Maynard(1990, p.406)는 일본어 사용 청자에게서 총 871개의 청자반응을 관찰했고, 이 가운데 70.49%에서 언어적 청자반응이 단독으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12) Maynard(1990, p.408)는 미국인 영어 사용 청자에게서 총 428개의 청자반응을 관찰했고, 이 가운데 50.23%에서 언어적 청자반응이 단독으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4. 고갯짓 청자반응 분석

고갯짓은 시선과 함께 청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몸짓이다(Foster and Oberlander(2007), Knight et al.(2011), Maynard(1989, 1990)). 고갯짓은 언어적 발화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지만, 언어적 발화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청자의 고갯짓은 화자의 이야기에 대해 청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화자가 갖고 있는 발화 주도권을 양도받고 싶을 때 사용되기도 하며, 단순히 화자의 이야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신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Heylen et al.(2007)). 본 연구에서는 고갯짓 수행 방향(형태)과 속도, 동작크기와 반복횟수를 기준으로 고갯짓에 대한 주석을 실시하였다. 고갯짓의 형태는 ‘앞에서 뒤로 끄덕’, ‘뒤에서 앞으로 끄덕’, ‘한쪽으로 가웃’, ‘한쪽으로 돌린다’, ‘양쪽으로 돌린다’, ‘복합’의 6가지로 구분하여 주석하였는데, 이 가운데에서 고개를 앞뒤로 흔드는 행위(hochement de tête), 즉 ‘앞에서 뒤로 끄덕’과 ‘뒤에서 앞으로 끄덕’으로 주석된 두 가지 고갯짓을 청자반응으로 간주하였다.<sup>13)</sup>

##### 4.1. 프랑스어 이야기 활동의 고갯짓 청자반응

프랑스어 이야기 활동 중에 청자가 수행한 고갯짓은 총 342개가 관찰되었다. 이 가운데 고갯짓 청자반응, 즉 앞뒤로 고개를 흔드는 행위는 총 211개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전체 고갯짓 가운데 61.7%가 고갯짓 청자반응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1분당 6.43개의 고갯짓 청자반응을 수행하였다.

| 청자번호 | 고갯짓 | 고갯짓 청자반응 | 고갯짓 청자반응이 언어적 청자반응을 수반한 경우 |
|------|-----|----------|----------------------------|
| 1    | 44  | 33       | 8                          |
| 2    | 14  | 9        | 1                          |
| 3    | 48  | 37       | 12                         |
| 4    | 41  | 18       | 8                          |

13) 고갯짓 청자반응의 정의는 Bertrand et al.(2009)을 따른다.



|      |     |     |    |
|------|-----|-----|----|
| 5    | 39  | 15  | 8  |
| 6    | 8   | 3   | 1  |
| 7    | 71  | 60  | 3  |
| 8    | 37  | 17  | 7  |
| 9    | 23  | 12  | 5  |
| 10   | 17  | 7   | 0  |
| 총빈도수 | 342 | 211 | 53 |

표 6. 프랑스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 요약표

고갯짓 청자반응은 언어적 청자반응을 수반하기도 한다. 'oui'나 'um' 등과 같은 언어적 청자반응을 수반한 고갯짓 청자반응은 53개가 관찰되었고, 언어적 청자반응을 수반하지 않고 고갯짓 청자반응이 단독으로 이루어졌거나, 언어적 청자반응이 아닌 일반적인 발화를 수반한 경우는 158개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고갯짓 청자반응 가운데 25.1%만이 언어적 청자반응을 수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고갯짓 청자반응 1개가 연속해서 수행하는 고갯짓의 횟수를 살펴보면, 1회의 고갯짓만 수행한 청자반응이 전체 고갯짓 청자반응의 46.92%를 차지했고, 2회 또는 3회의 고갯짓을 수행한 청자반응은 41.23%, 그리고 4회 이상 연속적인 고갯짓을 수행한 청자반응은 11.85%를 차지했다. 즉,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이야기 활동에서 3회 이하의 적은 횟수의 고갯짓을 수행하는 청자반응을 주로 사용했으며(88.15%), 고갯짓을 4회 이상 여러 번 수행하는 청자반응은 11.85% 사용하는데 그쳤다.

|                     | 출현빈도수 (개) | 백분율 (%) |
|---------------------|-----------|---------|
| 고갯짓이 1회 수행된 청자반응    | 99        | 46.92   |
| 고갯짓이 2회·3회 수행된 청자반응 | 87        | 41.23   |
| 고갯짓이 4회 이상 수행된 청자반응 | 25        | 11.85   |
| 총계                  | 211       | 100.00  |

표 7. 프랑스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의 고갯짓 수행 횟수 비교표

다음으로는 프랑스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의 수행 지속 시간(duration)을 살펴보았다. 수행된 고갯짓의 횟수와 상관없이, 수행 시간이 가장 짧은 고

갯짓 청자반응의 지속 시간은 0.3초였고 수행 시간이 가장 긴 고갯짓 청자반응의 지속 시간은 4.52초였다. 프랑스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 수행 시간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속 시간을 기준으로 고갯짓 청자반응을 다음과 같이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보았다.

|                          | 출현빈도수 (개) | 백분율(%) |
|--------------------------|-----------|--------|
| 0초-1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 | 107       | 50.71  |
| 1초-2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 | 82        | 38.86  |
| 2초-5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 | 22        | 10.43  |
| 5초 이상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       | 0         | 0      |
| 총계                       | 211       | 100.00 |

표 8. 프랑스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수행 지속 시간 비교표

전체 고갯짓 청자반응 가운데 1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의 비율은 50.71%였고, 1초 이상 2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의 비율은 38.86%였다. 그리고 2초 이상 5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의 비율은 10.43%에 머물렀으며, 5초 이상 지속되는 고갯짓 청자반응을 관찰되지 않았다. 즉, 2초 미만 동안 지속되는 고갯짓 청자반응의 비율이 89.57%나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고갯짓 청자반응을 수행할 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고갯짓을 수행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4.2. 한국어 이야기 활동의 고갯짓 청자반응

한국어 이야기 활동 중에 청자가 수행한 고갯짓은 총 421개 관찰되었고, 이 가운데 고갯짓 청자반응은 총 382개 관찰되었다. 즉, 한국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전체 고갯짓 가운데 90.74%가 고갯짓 청자반응이었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 청자는 1분당 9.19개의 고갯짓 청자반응을 수행하였다. 한국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이 언어적 청자반응을 수반한 경우는 99개 관찰되었다. 이것은 전체 고갯짓 청자반응의 25.92%에 해당한다.

| 청자번호 | 고갯짓 | 고갯짓 청자반응 | 고갯짓 청자반응이<br>언어적 청자반응을 수반한 경우 |
|------|-----|----------|-------------------------------|
| 1    | 16  | 15       | 10                            |
| 2    | 4   | 1        | 1                             |
| 3    | 22  | 17       | 0                             |
| 4    | 20  | 19       | 0                             |
| 5    | 23  | 17       | 6                             |
| 6    | 34  | 29       | 15                            |
| 7    | 114 | 110      | 13                            |
| 8    | 110 | 98       | 13                            |
| 9    | 56  | 56       | 39                            |
| 10   | 22  | 20       | 2                             |
| 총빈도수 | 421 | 382      | 99                            |

표 9. 한국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 요약표

한편, 한국어 사용 청자가 수행하는 고갯짓 청자반응의 고갯짓 연속 수행 횟수를 살펴보면, 1회의 고갯짓만을 수행한 청자반응은 전체 고갯짓 청자반응의 25.39%를 차지했고, 2회 또는 3회의 고갯짓을 수행한 청자반응은 34.82%, 그리고 4회 이상 연속적인 고갯짓을 수행한 청자반응은 39.79%를 차지했다. 즉, 한국어 사용 청자는 고갯짓이 4회 이상 연속되는 청자반응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고갯짓이 2회 또는 3회 연속되는 청자반응을 많이 사용했으며, 고갯짓이 1회만 수행되는 청자반응은 25.39%만 사용하였다.

|                     | 빈도수 (개) | 백분율(%) |
|---------------------|---------|--------|
| 고갯짓이 1회 수행된 청자반응    | 97      | 25.39  |
| 고갯짓이 2회-3회 수행된 청자반응 | 133     | 34.82  |
| 고갯짓이 4회 이상 수행된 청자반응 | 152     | 39.79  |
| 총계                  | 382     | 100.00 |

표 10. 한국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의 고갯짓 수행 횟수 비교표

한국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의 수행 지속 시간은 프랑스어 사용 청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행 시간이 가장 짧은 고갯짓 청자반응은 0.08초

동안 지속된 반면, 수행 시간이 가장 긴 고갯짓 청자반응은 11.07초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리고 전체 고갯짓 청자반응 가운데 1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은 37.96%인 반면, 1초 이상 2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은 35.08%, 그리고 2초 이상 5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은 21.99%였다. 5초 이상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도 4.97%가 관찰되었다. 즉, 2초 이상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이 26.96%나 된다는 사실은 한국어 사용 청자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고갯짓 청자반응을 수행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                          | 빈도수 (개) | 백분율(%) |
|--------------------------|---------|--------|
| 0초-1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 | 145     | 37.96  |
| 1초-2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 | 134     | 35.08  |
| 2초-5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 | 84      | 21.99  |
| 5초 이상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       | 19      | 4.97   |
| 총계                       | 382     | 100.00 |

표 11. 한국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수행 지속 시간 비교표

#### 4.3. 프랑스어 사용 청자와 한국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어 사용 청자와 한국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 수행 양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1분당 6.43개의 고갯짓 청자반응을 수행하고, 한국어 사용 청자는 1분당 9.19개의 고갯짓 청자반응을 수행하였다. 즉, 한국어 사용 청자는 프랑스어 사용 청자보다 1분당 2.76개, 백분율값으로는 30.03%p 정도 고갯짓 청자반응을 더 많이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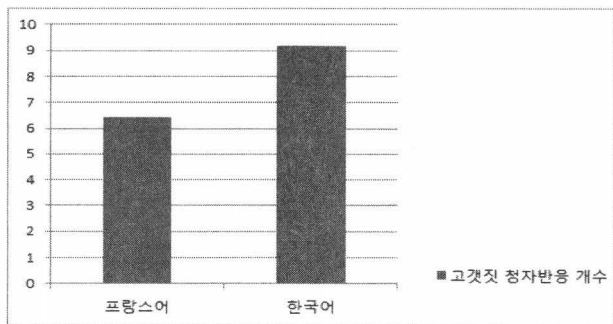


그림 4. 1분당 수행된 고갯짓 청자반응 개수

둘째, 프랑스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전체 고갯짓 중에 형태적 관점에서 청자 반응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갯짓은 61.7%인 반면 한국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전체 고갯짓 중에서 청자반응 고갯짓은 90.74%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고갯짓의 대부분은 청자반응으로서 기능하는 반면, 프랑스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고갯짓의 39% 정도는 청자반응 이외에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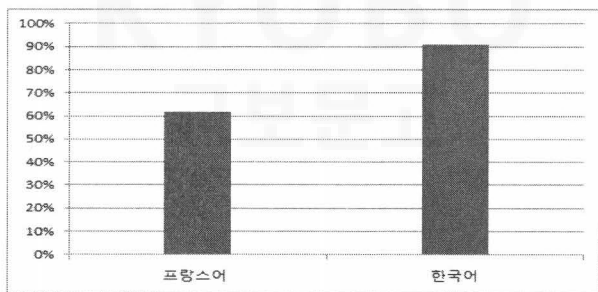


그림 5. 전체 고갯짓 중 고갯짓 청자반응의 비율

셋째, 프랑스어 사용 청자와 한국어 사용 청자의 고갯짓 청자반응 가운데 언어적 청자반응을 수반하는 비율은 25.1%와 25.9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프랑스어 사용 청자와 한국어 사용 청자 모두, 언어적 청자반응을 사용하지 않고 고갯짓만으로 청자반응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야기 활동에서 청자의 역할을 관찰할 때 언어발화만 관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청자의 몸짓도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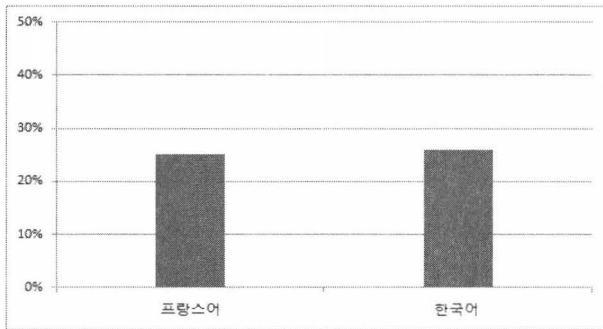


그림 6. 전체 고갯짓 중 언어적 청자반응을 수반하는 고갯짓 청자반응의 비율

넷째, 한국어 사용 청자는 프랑스어 사용 청자에 비해 여러 번 반복되는 고갯짓 청자반응을 선호하며, 더 오랫동안 고갯짓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프랑스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전체 고갯짓 청자반응 가운데 고갯짓을 4회 이상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청자반응의 비율은 11.85%에 지나지 않는 반면 고갯짓을 1회만 수행하는 청자반응의 비율은 46.92%에 이르렀다. 반대로 한국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전체 고갯짓 청자반응 가운데 고갯짓을 4회 이상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청자반응의 비율은 39.79%였으며, 고갯짓을 1회만 수행하는 청자반응의 비율은 25.3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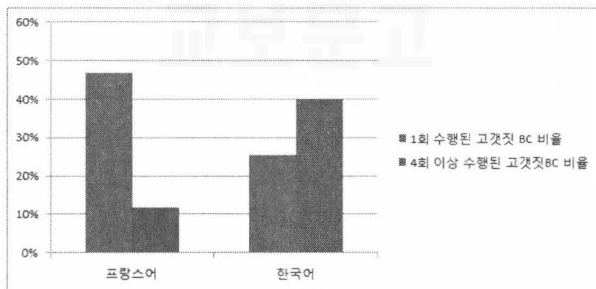


그림 7. 전체 고갯짓 청자반응 중 고갯짓이 1회 수행된 고갯짓 청자반응과 4회 이상 수행된 고갯짓 청자반응의 비율

또한, 프랑스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고갯짓 청자반응 가운데 1초 미만 동안 지속된 경우는 50.71%인 반면 2초 이상 동안 지속된 경우는 10.43%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로 한국어 사용 청자가 수행한 고갯짓 청자반응 가운데 1초 미만

동안 지속된 경우는 37.96%였고 2초 이상 동안 지속된 경우는 26.96%에 이르렀다. 즉,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갯짓 청자반응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한국어 사용 청자는 비교적 오랫동안 고갯짓 청자반응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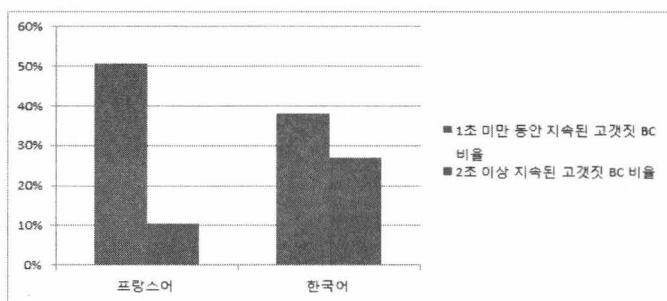


그림 8. 전체 고갯짓 청자반응 중 1초 미만 동안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과 2초 이상 지속된 고갯짓 청자반응의 비율

## 5. 결론

청자반응은 이야기 활동의 ‘최종 심판자’인 청자가 이야기 활동을 주도하는 화자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청자반응은 언어적 발화와 함께, 고갯짓처럼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비언어적인 행위가 조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면적인 신호이다. 게다가 이 신호는 개별언어마다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언어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자반응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면자료 말뭉치를 활용하여 프랑스어의 청자반응과 한국어의 청자반응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어의 청자반응과 한국어의 청자반응이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어 사용 청자는 프랑스어 사용 청자보다 언어적 청자반응과 고갯짓 청자반응 모두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프랑스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인은 과묵한 청중’이라는 통념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둘째, 한국어 사용 청자와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공통적으로, 언어적 발화 없이 고갯짓 청자반

응을 수행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갯짓 청자반응의 경우, 프랑스어 사용 청자는 3회 이하의 간단한 고갯짓을, 짧은 시간 동안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한국어 사용 청자는 고갯짓을 3회 이상 여러 번 연속적으로 수행하거나,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고갯짓을 수행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프랑스어 사용자와 한국어 사용자가 상대방의 고갯짓 청자신호의 사용 패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대방이 보내는 청자신호를 잘못 이해하고 이야기 활동을 수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대학생이 수행하는 이야기 활동만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조건의 청자들이 수행하는 이야기 활동을 대상으로 청자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고갯짓 이외의 비언어 청자반응, 예를 들어 웃음소리나 시선에 대한 분석 연구도 수행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Allwood, Jens. 2008. Multimodal corpora. *Corpus Linguistics*, ed. by Anke Lüdeling and Merja Kytö, 207-224. New York: Walter de Gruyter.
- Allwood, Jens., et al. 2005. *The MUMIN Multimodal coding Scheme*.  
<http://www.ling.gu.se/~jens/publications/bfiles/B80-3.pdf>.
- Allwood, Jens., et al., 2007. The analysis of embodied communicative feedback in multimodal corpora: a prerequisite for behavior simulation. *Lang Resources & Evaluation* 41, 255-272.
- Bertrand, Roxane., et al. 2008. Le CID-Corpus of Interactional Data. *Traitement Automatique des Langues* 49:3, 105-134.
- Bertrand, Roxane., et al. 2009. Représentation, édition et exploitation de données multimodales : le cas des backchannels du corpus CID. *Cahiers de Linguistique* 33: 2, 183-212.
- Clark, H. 1996. *Using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snier, J. 1988. Grands tours et petits tours, In Cosnier, Gelas, Kerbrat-Orecchioni (éds), *Echanges sur la conversation*, Editions du CNRS, 175-184.
- Cosnier, J. 1996. Les gestes du dialogue, la communication non verbale, *Revue*



- Psychologie de la motivation, 21, 129-138.
- Foster, Mary. and Jon Oberlander. 2007. Corpus-based generation of head and eyebrow motion for an embodied conversation agent. *Language Resources & Evaluation* 41, 305-323.
- Gardner, R. 2001. *When listeners talk: response tokens and listener stance*, London: J.Benjamin's.
- Goodwin, C. 1981. *Conversational Organisation: Interaction between Speakers and Hearers* NY: Academic Press.
- Heylen, Dirk. 2008. Listening Heads. Modeling Communication, In Ipke Wachsmuth and Günther Knoblich(ed.), *Lecture Not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4930*, 241-259. Heidelberg: Springer-Verlag.
- Heylen, Dirk., et al. 2007. Searching for Prototypical Facial Feedback Signals. IVA 2007, *Lecture Not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4722*, ed. by Catherine Pelachaud et al., 147-153. Heidelberg: Springer-Verlag.
- Jefferson, G. 1984. Notes on a systematic deployment of the acknowledgement tokens "Yeah" and "Mm hm", *Papers in Linguistics* 17, 197-216.
- Kendon, A. 1967. Some functions of gaze-direction in social interaction, *Acta Psychologica* 26, 22-63.
- Kendon, A. 1972. Some relationships between body motion and speech, In A. Siegman et al.(ed), *Studies in dyadic communication*, 177-210, NY: Pergamon Press.
- Kida, T. 2005. *Appropriation du geste par les étrangers : le cas d'étudiants japonais apprenant le français*, Univ. de Provence(Aix-Marseille I), thèse.
- Knight, Dawn. 2009. *A Multi-modal corpus approach to the analysis of backchanneling behaviour*.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 Knight, D. et al. 2011. HeadTalk, HandTalk and the corpus: towards a framework for multi-modal, multi-media corpus develment. *Corpus* 4:1, 1-32.
- Lund, K. 2007. Importance of gaze and gesture in interactive multimodal explanation. *Lang Resources & Evaluation* 41, 289-303.
- Maynard, S. 1989. *Japanese Conversation: Self-Contextualization through Structure and Interactional Management*. Norwood: Ablex Publishing.
- Maynard, S. 1990. Conversation Management in Contrat: Linstener Response in Japanese and American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14, 397-412.

- Mclave, E. 2000. Linguistic functions of head movements in the context of speech. *Journal of pragmatics* 32, 855-878.
- Oreström, B. 1983. Turn-taking in English conversation, Lund: LiberFörlang Ltd.
- Sacks, H. et al. 1974. A simplest systematics of the organisation of turn 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4-1), 696-735.
- Schegloff, E. 1982. Discourse as interactional achievement: some uses of "uh huh and other things that come between sentences, In Tannen, D.(ed.) *Analyzing Discourse, Text, and Talk*,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 Press, 71-93.
- Selting, M. 1998. TCUs and TRPs: the construction of 'units' in conversational talk, *Interaction and Linguistic Structures* 4, 1-48.
- Tottie, G. 1991. Conversational style in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The case of backchannels, In D. Aijmer et al(ed) *English corpus linguistics*, London: Longman, 254-271.
- Tsuchiya, K. 2010. *A culture-sensitive taxonomy of response tokens : moving from listenership to speakership*, Univ. of Nottingham, Ph.D. dissertation.
- Wittenburg, Peter. 2008. Preprocessing multimodal corpora. *Corpus Linguistics*, ed. by Anke Lüdeling and Merja Kytö, 664-684. New York: Walter de Gruyter.
- 김하수. 1989. 「언어행위와 듣는 이의 신호에 관한 화용적 분석 시도 - 담화 속의 {네}」,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한국어어학당),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14.
- 손현정. 2012. 「한국어 다면자료 구축 연구」,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언어사실과 관점』 제30집, 55-78.
- 이원표. 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차지현. 2007. 『한국어 대화의 말 끼어들기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Résumé>

## Etude des backchannels du français et du coréen

- backchannels verbaux et backchannels de tête -

SON Hyunjung · COURALET Stéphane

La présente étude vise l'analyse des backchannels verbaux et non-verbaux enregistrés auprès d'interlocuteurs appartenant à deux groupes ethnolinguistiques différents : un groupe constitué de dix étudiants français, l'autre constitué de dix étudiants sud-coréens.

Les résultats issus de cette expérience menée de front en France et en Corée du Sud révèlent, contre toute attente, que les participants sud-coréens expriment davantage de backchannels verbaux et non verbaux que les interlocuteurs français.

Cette étude se compose de quatre parties.

Dans la première partie, nous rappelons les points de terminologie importants ainsi que certaines études importantes sur le sujet tandis que nous consacrons la deuxième partie à la présentation du corpus multimodal : sa constitution et son annotation via le logiciel ELAN.

La troisième partie s'attache à l'étude des backchannels verbaux dans l'acte de narration chez les deux groupes d'interlocuteurs. On y présente une typologie détaillée des formes produites par les locuteurs français et coréens en opérant une distinction supplémentaire originale des formes verbales en fonction de leur degré de complexité. Par exemple, pour le français, on distingue : 1) une forme simple « oui » ; 2) une forme répétitive « oui, oui » ; 3) une forme complexe associant au moins deux éléments de natures différentes du type « oui, d'accord » etc. D'après les fréquences relevées, l'expérience montre que les interlocuteurs coréens (avec 4,96 fois par

minute) produisent en moyenne plus de backchannels verbaux que les interlocuteurs français (avec 3,65 fois par minute).

L'étude sur les backchannels non-verbaux menée dans la quatrième partie se concentre sur l'observation des hochements de tête, mouvement corporel très pertinent dans cette analyse. Les résultats sont aussi surprenants. On remarque en effet que les interlocuteurs coréens (avec 9,19 fois par minute) produisent en moyenne plus de backchannels non-verbaux que les interlocuteurs français (avec 6,43 fois par minute).

Cette étude comparative menée en France et en Corée du sud dresse un tableau de fréquence d'utilisation des backchannels dans deux groupes d'interlocuteurs différenciés par leur appartenance ethnolinguistique. Elle renseigne donc directement sur le processus d'écoute des interlocuteurs et nous permet aussi d'affiner nos catégories descriptives.

주제어: 청자반응backchannel, 고갯짓 청자반응hochement de tête, 이야기 활동narration, 다면자료  
말뭉치corpus multimodal, 빈도수fréquence

논문투고일: 2013년 06월 14일 || 논문심사일: 2013년 07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3년 07월 22일